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우연학습이론의 과제접근기술에 기초한
대학생 군집유형별 진로관련특성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수 진

우연학습이론의 과제접근기술에 기초한
대학생 군집유형별 진로관련특성

이 정 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수 진

인 준 서

이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박혜경 (인)

심사위원 서수연 (인)

심사위원 이경훈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제접근기술(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에 따른 군집유형을 확인하고, 도출된 군집유형들 간에 진로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전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군집분석한 결과, 과제접근기술에 따라 여섯 개의 군집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평균 수준의 과제접근기술을 가지는 ‘평균-일반형’, 군집 2는 인내심과 낙관성이 낮은 ‘낮은기대-포기형’, 군집 3은 인내심과 낙관성이 높은 ‘높은기대-인내형’, 군집 4는 호기심과 유연성이 높은 ‘높은탐색-도전형’, 군집 5는 전체적으로 낮은 과제접근기술을 가지는 ‘취약-혼돈형’, 군집 6은 가장 높은 과제접근기술을 가지는 ‘우수-긍정형’이다. 각 군집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없었으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스트레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군집 3(높은기대-인내형)과 군집 6(우수-긍정형)에서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이 높고 진로스트레스는 낮아 가장 적응적이었으며, 군집2(낮은기대-포기형)과 군집 5(취약-혼돈형)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생의 과제접근기술에 따라 진로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각 군집의 특성에 대한 해석과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과제접근기술,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 군집분석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6
II. 이론적 배경	8
1. 대학생 시기의 진로	8
2. 과제접근기술	9
1) Krumboltz의 우연학습이론	9
2)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	11
3) 과제접근기술과 진로관련특성	14
3. 과제접근기술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	16
1) 과제접근기술과 진로정체감	16
2) 과제접근기술과 진로결정자율성	18
3) 과제접근기술과 진로스트레스	20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측정도구	24
1) 과제접근기술	24
2) 진로정체감	25
3) 진로결정자율성	25
4) 진로스트레스	26
3. 자료분석	26

IV. 연구결과	28
1.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차이검증	28
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30
3.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유형	31
4. 군집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진로특성	34
1)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34
2)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 ...	36
V. 논 의	39
1. 결과에 대한 논의	39
1)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과 진로특성의 관계	39
2)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 유형별 특징 및 진로특성	41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	47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2
<표 2> 과제접근기술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 α 값	24
<표 3>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 차이검증	28
<표 4> 학년에 따른 측정변인 차이검증	29
<표 5> 주요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30
<표 6> 군집화 일정표	31
<표 7> 최종 군집별 중심점	32
<표 8> 군집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35
<표 9> 군집유형별 진로특성의 차이검증	37

그 립 목 차

[그림 1]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른 대학생 군집유형 3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후기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2016년을 기준으로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며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80%가 진학을 선택한다(통계청, 2016). 그러나 학벌을 중시하는 입시 위주의 환경에서 대학 진학은 성적이나 여타의 조건에 의한 수동적인 선택인 경우가 빈번하다(황매향, 2002). 결과적으로 진로 선택에서 적성이나 흥미 등을 고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관련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안윤정, 오현주, 2012). 이러한 진로 관련 스트레스는 학업적응이나 전반적인 대학생활의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유진, 2007).

대학생 시기에는 확립된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 요구되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정체감 형성에서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다(Shaffer, 2002). 국내 대학생의 경우 약 70%가 직업적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고홍월, 2008),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미숙한 발달은 진로의사결정능력(Marcia, 1980) 및 진로결정수준(Vondracek, Schulenberg, Skorikow, Gillespie, & Wahlheim, 1995)의 미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나아가 취업실패나 잦은 이직, 직무 불만족, 진로 재탐색 등의 형태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홍월, 2008).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306개 기업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조기퇴사율은 27.7%에 이르고, 퇴사 원인으로서는 ‘조직, 직무적응 실패’가 4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아시아경제, 2016). 따라서 학교와 직장의 전환점에서 있는 대학생 시기는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위한 중요

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개인적인 진로발달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진로상담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진로상담은 Parsons의 특성요인이론, Holland 직업성격유형론, 사회경제체제이론 등의 합리적 선택을 중시하는 이론들을 토대로 이루어져 왔다(손은령, 2009; Mtichell, Levin & Krumboltz, 1999). 전통적인 관점에서 진로선택은 합리적이면서도 일회적인 결정으로 간주되었고, 개인의 적성과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특성을 갖는 직업을 매칭하는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했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이론과 연결하여 볼 수 있는 변인은 성격으로, '5요인 성격 특성'(Big Five personality traits)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인차를 설명하는 이론이다(Buss, 1989). 그러나 성격과 같은 기질의 경우 쉽게 변하지 않는 개인의 일관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특성이기 때문에(김보영, 양나연, 양혁, 양준영, 정성훈, 이상민, 2016) 개인과 직업을 매칭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일종의 정답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고, 선택한 직무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적응이 발생했을 때 대안에 대한 진로 재탐색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진로와 관련한 선택은 일생동안 반복되는 과정임을 고려한다면, 한 번에 가장 합리적인 진로를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진로상담은 다양하고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접근으로 보여진다.

또한 우리 사회는 경제와 고용시장의 불안정, 고용형태와 경제활동 인력의 다양성, 세계화를 통한 인프라의 구축과 기술의 발전 등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은 불확실함을 가중

시킴에, 진로상담에서도 한 번에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보다 자기개발과 관리를 통해 창조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적응하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2). 따라서 성공적인 진로 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당면했을 때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손은령, 2009). 결과적으로 진로상담에 있어서도 수동적 접근인 매칭이 아니라, 개인이 능동적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제시되고 있다(Krumboltz,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우연(happenstance)이나 기회(chance)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다.

Krumboltz(2009)는 우연한 사건을 학습기회로 삼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연학습이론을 토대로, 예기치 못한 우연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과제접근기술’ 혹은 ‘계획된 우연기술’이라고 이름붙인 5가지 능력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성격 5요인이 개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이라면, 과제접근기술은 진로상담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진로 기회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자 학습기술이다(Mitchell 등, 1999). 따라서 과제접근기술은 고정적인 기질이 아닌 학습을 통해 강화하고 개발할 수 있는 변인으로(김보영 등, 2016), 진로 발달이나 진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Mitchell 등(1999)의 제안에 따라 외국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진로 발달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으며(Kashdan, Roberts, 2002), 호기심은 진로 적응성(Kashdan, Rose, Fincham, 2002)과, 낙관성은 진로 성숙(Careed, Patton, Bartrum, 2002)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 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Krumboltz 등(2013)은 우연학습이론과 과제접근기술을 활용한 진로상담 사례를 통해 진로 전환시 내담자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주장

하였으며, 과제접근기술이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우연학습이론의 과제접근기술과 관련된 연구는 외국의 우연이론에 대한 고찰 혹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연구 등에 그치는 실정이다(손은령, 2009; 송병국, 1998; 송병국, 이채식, 1997). 이에 신순옥 등(2015)은 과제접근기술이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진로관련 변인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흔히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초기연구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결정-미결정을 판별한 후 진로미결정자의 미결정 원인, 상태, 유형 등을 파악해 진로상담을 통한 개입으로 진행되어 왔다(김계현, 고흥월, 김경은, 2013). 그렇다 보니 ‘진로결정자는 진로발달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진로결정자에 대한 연구는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지게 되었고, 반대로 모든 진로미결정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미숙한 진로발달 단계에 있다고 간주하게 되었다(고흥월, 2008; 김경은, 2011; 최은영, 2010; Callanan & Greenhaus, 1992; Wanberg & Muchinsky, 1992). 그러나 최근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결정-미결정뿐만 아니라, 결정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김계현 외, 2013; 김경은, 2011; Kelly & Lee, 2002; Sampson et al., 2004). 진로상담에서 다양한 내담자의 상태에 맞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진단과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미결정자에 대한 문제적 접근이 아닌 진로미결정의 복합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미결정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Kelly & Lee, 2002). 또한 진로미결정자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자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고흥월과 김계현(2008)은 진로결정자에게도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숙한 결정자(결정-불편)자와 성숙한 결정자(결정-편안)의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결과 두 집단 간에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과

자아개념 명료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또한, 두 집단 간에 진로결정문제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미숙한 결정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동기가 부족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직업/진로결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모순된 정보로 인해 갈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홍월,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정체감과 동기, 그리고 직업 정보의 수준이 성숙한 결정자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홍월(2008)은 성숙한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질적으로 높은 진로발달 및 결정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리하면, 기존의 진로연구는 특성이론, 발달이론과 같이 개인의 심리내적 요인과 관련된 이론들을 주로 검증해왔으나, Krumboltz(1996)의 사회학습이론이나 사회인지이론과 같이 진로발달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교적 최근의 이론들과 관련해서는 경험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손은령(2009)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연의 역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인 진로연구에서는 개인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변인은 성격 5요인과 같은 특성이었으나, 진로선택 과정에서 불확실성은 필연적이며 진로선택이 일생동안 반복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일관적인 기질로 설명되는 성격보다는 가변적이고 개발이 가능한 특성을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연한 사건을 진로의 기회로 삼는 학습전략인 과제접근기술을 통해 개인차를 설명하고 진로상담을 위한 차별적인 진단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변인중심 분석법(variable-centered analysis)을 사용하여 각각의 과제접근기술과 진로관련 변인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다양한 과제접근기술을 개인마다 달리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접근기술의 조합에 따라 진로관련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려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에서 요구되는 ‘차별적 처치를 위한 차별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개인차를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심 분석법(person-centered analysis)인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군집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Krumboltz가 제시한 학습가능한 개인의 역량인 과제접근기술에 따라 진로 관련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성숙한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표로 과제접근기술(낙관성, 유연성, 인내심, 호기심, 위험감수)을 선정하여, 이러한 성향의 개인차에 따라 대학생들이 어떻게 군집화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도출된 군집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진로 의사결정의 성숙-미성숙 수준을 구분하는 변인으로 제시된 2가지 요인(진로정체감, 동기수준)과 개인이 지각하는 안녕감의 차원인 진로스트레스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에서 결정-미결정의 이분법적 개입이 아닌 보다 다양한 수준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과제접근기술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도출되는 대학생들의 군집 간에 나타나는 차별적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앞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과제접근기술(낙관성, 유연성, 인내심, 호기심, 위험감수)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를 나

타내는가?

가설 1-1. 낙관성, 유연성, 인내심, 호기심, 위험감수는 진로정체감과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2. 낙관성, 유연성, 인내심, 호기심, 위험감수는 진로결정자율성과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1-3. 낙관성, 유연성, 인내심, 호기심, 위험감수는 진로스트레스와 부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문제 2]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이 존재하는가?

가설 2.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라 군집을 이룰 것이다.

[연구문제 3] 과제접근기술에 기초하여 도출된 군집유형에 따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3-1. 과제접근기술에 따라 도출된 군집유형 간 진로정체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2. 과제접근기술에 따라 도출된 군집유형 간 진로결정자율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3-3. 과제접근기술에 따라 도출된 군집유형 간 진로스트레스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 시기의 진로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은 개인이 평생동안 수행하는 일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우연적 요인 등의 발달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Zunker, 2002). 따라서 진로발달은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만 해당되는 과업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성숙과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이다(김충기, 1999). 그러므로 진로발달은 개인이 처한 환경인 가족, 학교, 동료 등의 진로관련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김은주, 2008). 전생애 발달을 전제로 하는 Super(1957)의 이론에서는 성장기(출생-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5-64세), 은퇴기(65세 이후)로 진로발달을 제시하는데, 대학생은 이 중 탐색기 후반에서 확립기 초반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능력을 재평가하고,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직업적인 선호를 구체화시키며,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이처럼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성인초기의 대학생들은 진로결정과 준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체제 하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을 할 기회가 부족한 가운데 대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빈번하게 경험한다(김이지, 정신영, 김지애, 김지윤, 이동귀, 2011). 대학에 들어와 전공 공부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다양한 경험을 쌓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여,

졸업을 앞두고도 취업과 진학의 선택에 대한 고민까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 부딪힌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졸업을 유예하고 'NG(No Graduation)족'이 되거나 취업준비활동을 위해 휴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대학기간 동안 충분한 진로탐색이나 진로결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김민정, 김봉환, 2014).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인 초기의 많은 대학생들이 진로미결정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Gaffner & Hazler, 2002), 진로 탐색, 진로의사결정,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해서는 '차별적인 진단과 차별적인 처치(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강조하면서(김봉환, 김계현, 1997)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전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지표들 통해 대학생들을 차별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2. 과제접근기술

1) Krumboltz의 우연학습이론

직업세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안적 진로상담의 요구로 최근에는 기존의 진로이론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환경의 중요성, 우연한 기회, 직관 혹은 영성과 같은 특성들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그러나 진로와 관련해서 우연(happenstance)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우연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영향, 기회, 행운 등

과 함께 사용되며(손은령, 2009), 우연적 사건이 실제로 개인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거나(Caplow & Raymond, 1954), 기회를 얻는 것이 개인의 삶에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Bandura, 1982)는 주장이 과거에도 논의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진로선택 시 대학생이 지각하는 우연의 영향에 대한 중요도를 확인한 연구(이상희, 신상수, 2012)나 성인 노동자(송병국, 1998), 40대 여성 진로상담 전문가(손은령, 2012)를 대상으로 한 우연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연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는 Williams 등(1998)의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Bandura(1982)는 인간 삶의 경로를 형성하는데 우연적 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iller(1983)는 이성적인 진로계획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로선택과정에서의 우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Mitchell 등(1999)은 진로와 관련한 기회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진로의사결정 사회학습이론(Krumboltz, 1979)과 진로상담학습이론(Krumboltz, 1996)을 확장시켜 ‘계획된 우연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을 제시하였다. 즉 계획된 우연이론은 진로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우연 또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황현덕 외, 2012). 계획된 우연이론은 이후 Krumboltz(2009)에 의해 ‘우연학습이론’(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으로 재정립되었다. Krumboltz 등(2013)에 따르면 우연학습이론은 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창의적인 적응을 기대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이론이며, 개인에게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를 부여한다. 또한 직업 특성과 개인의 성격 특성을 매칭할 필요 없이 개인은 지속적으로 변화에 개방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Mitchell, Levin과 Krumboltz(1999)는 환경이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

어져 있기 때문에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계획된 우연 이론에서는 우연적 사건을 사전적인 의미인 ‘의도 또는 계획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건’ 그대로가 아닌 ‘개인이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황현덕 외, 2012; Mitchell et al., 1999). 이러한 우연이 진로결정 및 진로이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손은령, 2012; 최보영 외, 2011; 황현덕, 2011; Bloch, 2005; Bubany et al., 2008; Bright, Pryor & Harpham, 2005).

또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적인 사건을 의미 있는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그리고 위험감수의 다섯 가지 기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Krumboltz, 2009; Mitchell et al., 1999), 이 다섯 가지 기술을 갖춘 경우 우연적 사건은 기회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우연적 사건’이 아닌 ‘계획된 우연’이라고 개념화하였다(최보영 외, 2011).

2)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

앞서 제시된 계획된 우연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에 따르면, 우연은 계획되지 않은 것이지만 개인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우연 사건을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창조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이 때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기술로 제시된 것이 과제접근기술이다(Mitchell 등, 1999). 과제접근기술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성취하고자 할 때 동원하게 되는 개인의 자원으로, 타고난 능력, 환경적인 조건, 학습경험의 상호작용 결과로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는 개인 내적인 특성이다(김병숙, 2007). Mitchell 등(1999)은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 5가지 과제접근기술을 주장하였다. 5가지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으로는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Kim, Jung 등(2014)에 의해 계획된 진로 우연 척도(PHCI;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가 개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과제접근기술의 효과 검증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2).

구체적으로 과제접근기술의 5가지 하위요인을 살펴보자면 첫째, 호기심(curiosity)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탐색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 심리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Cacioppo et al., 1996; McCrae & Costa, 1997). 대표적으로는 긍정적인 정서나 통제감, 창의성과 관련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일이나 놀이에서의 적극성과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성향 등을 설명해주는 변인이다. 호기심은 전생애를 통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성향은 감소하기도 하며 자극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권석만, 2008).

둘째, 인내심(persistence)은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성격이나 동기수준, 감정통제력 등의 개인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권석만, 2008). 보다 구체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의 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정미영, 조한익, 2009; 김지혜, 현명호, 2011; 조성연, 조한익, 20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부정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과도하게 높게 지각하며 이를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의 부재를 스트레스로 경험한다(Buhr & Dugas, 2002; 오영아, 정남운, 2011).

셋째, 유연성(flexibility)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Gough(1987)는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선호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외적 자극에 민감하고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점,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는 성향이라는 점에서 ‘개방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McCare & Costa, 1997).

넷째, 낙관성(optimism)은 새로운 기회들을 가능성 있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낙관성은 개인의 적응과정, 심리적인 건강 및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Scheier 등(1994)에 따르면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하며 나아가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응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낙관성은 나이나 성별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양한 생활사건이나 후천적인 훈련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변인이다(권석만, 2008).

마지막으로, 위험감수(risk taking)는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의 속도가 빠르고 손실보다는 기회를 잡으려 하는 반면,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보다 신중하고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김완재, 정화영, 2007). Higgins(1997)는 동기에 초점을 두고 위험행동을 설명하는데, 만약 성장이나 향상, 이득에 민감하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위험감수 행동을 하게 되지만, 안전이나 예방, 손실에 민감하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위험을 회피한다(정은경, 김봄메, 손영우, 2011).

3) 과제접근기술과 진로관련특성

Mitchell과 Krumboltz(1990)에 따르면, 과제접근기술은 진로관련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으로 진로발달이나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세상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제접근기술을 잘 갖춘 경우 적극적인 직업탐색이 촉진되고 이러한 진로탐색활동은 기회, 우연의 획득을 돕는 순환으로 나타난다(황현덕 외, 2012). 또한 적극적인 진로탐색은 진로관여도를 높이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고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김보람, 2012). 이외에도 과제접근기술은 높은 진로관여도(Kim, Jung et al., 2014), 긍정적인 취업태도(조남근, 정미예, 2013)와도 관련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로정체감의 세부적인 단계와 과제접근기술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정지후, 이상희, 2014). 또한 Kim 등(2015)은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과제접근기술이 진로변인들에 대해 한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함을 확인하였다.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별로 진로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호기심은 진로와 관련한 탐색활동과 크게 관련되며(Blustein, 1997) 직업 선택을 앞둔 대학생들에게는 진로탐색행동이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업수행이나 자발적인 직업 선택과 같은 행동적인 변인과 관련되며, 진로 적응성의 하위요인인 독립성, 주관적 안녕감, 자존감 등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Kashdan, Rose, & Fincham, 2002). 또한 자신의 전공과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호기심을 활용해 자격증 공부나 대학원 진학 등 진로경로를 개척해나갈 수 있다(오현주, 2013).

인내심은 직업선택 과정이나 직업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극복할 수 있으며 호기심에 의해 탐색활동을 하다가 좌절할 때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오현주, 2013).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내력이 부족할 경우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고(김나래, 이기학, 2012), 결정을 회피하고 미루기 때문에 진로미결정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욱, 2009; 장진이, 2016). 또한 김기숙(2010)의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가 높을수록 높은 진로정체감을 갖는 정적 상관관계가 지지되었다.

낙관성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의미하는데(Scheier & Carver, 1985), 결과에 대한 기대는 목표를 설정하는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로설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Creed, Patton & Bartrum, 2002). 즉, 낙관적인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진로설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이동혁 등(2012)의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진로성숙도를 유의하게 설명했으며 진로계획 수립을 도와 진로만족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성의 특징 중 경험에 대한 높은 개방성은 진로발달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김지연, 황매향, 2004). 또한 과제접근기술 중 유연성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며, 진로장벽을 낮추는 것보다도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함이 제안되고 있다(권기남, 2016).

위험감수와 진로특성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위험감수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곽다운, 2012) 위험감수 행동을 통해 변화하는 진로환경에서 불확실한 결과를 무릅쓰고 진로를 바꾸거나 대안을 탐색하는 등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권기남, 2016). 결과적으로 다양한 기회와 우연을 활용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유연성이나 호기심과 같은 다른 과제접근기술을 통한 진로적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험감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이해가 필요한데, 위험감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나 충동성 등과 같은 성격적인 변인을 통해 위험감수의 부정적인 측면을 조명해왔기 때문이다(오현주, 2013). 본 연구에서는 ‘우연을 창조적인 학습경험으로 만드는 기술’로서의 위험감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Higgins(1997)는 동기적인 측면에서 성장과 향상에 대한 욕구가 강할 때 위험감수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정은경 등(2011)은 지각된 이득이 클 때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커짐을 확인하면서 위험감수행동은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위험감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숙한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적인 진단 지표로 과제접근기술(낙관성, 유연성, 인내심, 호기심, 위험감수)을 선정하여 진로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 과제접근기술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참고하여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라 도출된 군집별 차이를 타당화하는 외적 준거로서, 진로의사결정의 성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과 개인이 지각하는 안녕감의 차원인 진로스트레스를 선정하였다.

1) 과제접근기술과 진로정체감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한 연구는 흔히 결정과 미결정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점차 의사결정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관점으로 이동해 최근에는 성숙-미성숙, 결정-미결정의 차원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홍월, 2008). 이 때 성숙한 결정자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고홍월(2008)은 자신에 대한 이해, 즉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을 강조했다.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의 개념을 진로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직업과 관련한 자아정체감을 의미하며, 직업에 대한 개인의 목표, 흥미, 능력 등에 대한 인식이다(Holland, 1985). 즉, 진로와 관련한 자기에 대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의미한다(김보람,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자아정체감이 진로의 발달과 성숙, 나아가 결정과도 관련이 높다고 하였으며, 진로정체감이 낮을수록 진로 의사결정을 어려워하여 미결정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Harren, 1979; Blustein, 1997). 특히, 진로정체감의 수준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경은, 2011). 또한, 진로정체감은 다양한 내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Kelly와 Shin(2009)의 연구나 내적 차원의 요인인 과제접근기술이나 성격, 포부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Fouad와 Kantameni(2008)의 연구를 통해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의 관련성이 지지되고 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긍정적 관점인 낙관성은 긍정적인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iemer, 2007), 유연성이나 인내심도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lancy & Dollinger, 1993; Whitbourne, 1986). 또한 Porfeli 등(2011)의 다차원 진로정체감 지위 평가 모형(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을 토대로 진로정체감을 수준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인 성취부터 유예, 유실, 흥미, 탐색유예, 미분화의 6단계로 분류했을 때, 과제접근기술 중 인내심과 위험감수는 성취단계, 호기심은 유예단계, 낙관성은 성취나 유예단계 등 높은 진로정체감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Diemer, & Blustein, 2007). 반면, 정지후와 이상희(2014)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의 경우에도 6단계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진로정체감 수준과 과제접근기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Porfeli 등(2011)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낮은 진로정체감 수준인 탐색유예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과제접근기술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낮은 진로정체감 수준인 탐색유예 단계에서 높은 진로신념과 진로정체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정지후, 이상희, 2014)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과제접근기술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성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유형별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과제접근기술과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준비과정 및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한 개인의 동기 변인은 자기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다루고 있다(Deci & Ryan, 1985).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인 심리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될 때 자기동기와 정신건강이 향상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동기와 안녕감이 감소할 수 있다(Ryan & Deci, 2000).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되는 것이 자율성의 욕구로 개인이 지각한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인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가장 낮은 수준인 외적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구분될 수 있다(Deci & Ryan, 1985). 그리고 외적동기는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가장 낮은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부터 주입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동일시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로 다시 구분될 수 있다(최윤정, 구분정, 2010). 내

적동기는 과제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으로 인해 동기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조절은 보상이나 제한 등의 외적인 수단에 의해 행동이 조절되는 것, 주입된 조절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내재된 행동으로 불안이나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동일시된 조절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실행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내적동기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실제 즐거움을 얻지는 못하고 필요에 의해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행동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자율성의 개념을 진로영역으로 확장한 개념이 진로결정자율성으로 진로결정 및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의 수준을 의미한다(이정아, 2014).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동기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결정자율성은 진로의사결정 및 준비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Guay, 2005). 과제접근기술과 진로결정자율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나 진로결정자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계성을 유추할 수 있다. 공윤정과 이은주(2014)는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이 낮은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이 진로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적 동기에 따라 진로를 결정한 경우 초반에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막연함과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전공 관련 다양한 활동들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정보탐색, 성공 경험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높은 진로적응 수준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외적 동기로 선택한 전공에 대해 내적인 동기가 생기면서 자율성과 적극성이 높아지는 변화가 동반되었다. 즉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진로자율성 동기를 가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진로적응성과 전공만족도가 높아졌다. 또한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이 높은 경우 높은 결과기대와 유능성을 가지고 진로탐색행동을 지속 및 강화시키며(신윤정, 2013), 높은 진로결정자율성 수준을 갖는 경우 진로결정에

대한 몰입과 관여 또한 높아졌다(강현이, 2013; 김지근, 이기학, 2011).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행동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은 탐색활동과 경험추구를 촉진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몰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인 유연성, 낙관성 등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결정자율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과제접근기술과 진로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지만, Folkman (1984)에 따르면 개인의 자원이 모자라서 자신의 안녕이 위협하다고 평가하는 개인-환경의 구체적인 관계로 스트레스를 정의하였다. 스트레스는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정의석, 노안영, 2001). 이러한 스트레스 개념이 진로영역에 적용된 진로스트레스는 졸업 후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인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류미화, 2003).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변인으로, 전경구 등(2000)은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나타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파악한 결과, 장래의 진로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성경(2003)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진로와 관련한 문제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크게 지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스트레스는 학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특성이며, 자기조절학습이나 진로준비행동, 대학생활적응 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희, 2013). 이현림 등(2008)은 진로스트레

스를 많이 지각할수록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강유리(2006)의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성숙한 태도가 진로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낙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다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며(김주희, 1995),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보다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김경미, 배영광, 2014). 결과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갈등을 마주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진로탐색과 결정과정 자체를 모호하고 불안정하게 지각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한다(설승원, 2008). 그러나 과제접근기술은 발생할 수 있는 우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진로스트레스나 진로미결정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최보영 등, 2011). 차영은과 김시내(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계획된 우연기술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관련 탐색행동이나 선택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현림 등(2008)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에는 우연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과제접근기술 활용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차영은, 김시내, 2015),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라 도출된 군집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점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전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관련 군집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의 수는 최소 304명(박민지, 김계현, 2015)에서 많게는 826명(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까지 다양했으며, 평균적으로 400여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유나현, 이기학, 2016; 장진이, 2016). 표본크기의 산출을 위해 G power 3.1 을 사용한 결과 적합한 표본크기는 324명이었으며, 선행연구와 불성실한 응답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400개의 자료수집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383개(오프라인 262부, 온라인 121부)의 자료를 토대로 설문조사 방법에 따른(온라인/오프라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383개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 전공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90	49.6
	여	193	50.4
학년	1학년	85	22.2
	2학년	98	25.6
	3학년	98	25.6
	4학년	94	24.5

	기타	8	2.1
전공계열	인문과학	100	26.1
	사회과학	79	20.6
	자연과학	16	4.2
	공학	61	15.9
	생활과학	3	.8
	의학/간호	13	3.4
	상경	14	3.7
	사범	35	9.1
	예체능	59	15.4
	기타	3	.8
대학만족도	매우 불만족	11	2.9
	불만족	90	23.5
	만족	226	59.0
	매우 만족	56	14.6
전공만족도	매우 불만족	7	1.8
	불만족	54	14.1
	만족	222	58.0
	매우 만족	100	26.1
	합계	383	100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1.29세($SD=2.21$)이며, ‘학년별’로 1학년 85명(22.2%), 2학년 98명(25.6%), 3학년 98명(25.6%), 4학년 94명(24.5%), 그리고 기타에 응답한 5학년이 8명(2.1%)이었다. 그 중 남자가 190명(49.6%)이었고 여자가 193명(50.4%)이었다. 학생들의 전공은 인문과학계열 100명(26.1%), 사회과학계열 79명(20.6%), 공학계열 61명(15.9%), 예체능계열 59명(15.4%) 순으로 많았다. 대학만족도와 전공만족도는 약 60%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2. 측정 도구

1) 과제접근기술

과제접근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Krumboltz와 Levin(2004)이 제기한 계획된 우연 이론에 기반하여 Kim(2014) 등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계획된 우연 진로 척도(PHCI;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에 따라 호기심 5문항, 유연성 5문항, 인내심 5문항, 낙관성 5문항, 위험감수 5문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내 주변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호기심을 갖는다’, ‘진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 등의 문항이다.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계획된 우연 역량을 많이 활용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α 값은 .93이다(표 2).

<표 2> 과제접근기술 척도의 문항구성 및 Cronbach α 값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호기심	1, 2, 3, 4, 5	5	.68
유연성	6, 7, 8, 9, 10	5	.62
인내심	11, 12, 13, 14, 15	5	.79
낙관성	16, 17, 18, 19, 20	5	.80
위험감수	21, 22, 23, 24, 25	5	.70
	전체	25	.93

2)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신정과 김성희 (2012)에 의해 개발된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정체감 정서, 진로정체감 인지, 진로정체감 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확립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는 진로에 대한 나의 능력을 몰라서 걱정스럽다’, ‘나는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 갈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α 값은 .65이다.

3)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율성의 측정은 Guay(2001)가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결정자율성척도(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CDMAS)를 한주옥(2004)이 번안하고 김태환(2013)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내적동기, 동일시된 조절, 주입된 조절, 외적조절의 하위요인과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한다. 진로결정자율성 지수는 Guay(2005)가 제안한대로 각 행위별로 4개의 동기유형을 (내적동기+동일시된 조절)-(주입된 조절+외적조절)의 공식에 대입해 8개의 자율성 지수를 산출한 후 이를 순서대로 2개씩 묶어 평균을 구해 4개의 지수를 산출한다(Marsh & Yeung, 1997). 이렇게 산출된 지수의 합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대한 자율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α 값은 .93이다.

4) 진로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해 김송화(2011)가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 질문지’를 선별,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취업을 해야겠는데 학점이 나빠서 걱정이다’,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몰라서 답답하다’,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식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α 값은 .91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P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한다.

(1) 주요 변인인 과제접근기술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2) 대학생들이 5가지 과제접근기술 요인에 따라 몇 개의 하위집단으로 도출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Hair 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단계에서 Wards의 방법으로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를 통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 분석을 사용하였다. 군집의 수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거리를 나누어 각 구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최종 군집별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며 각 군집에 배정된 수가 비교적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군집으로 최종군집을 확정하였다.

(3)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차이검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군집이 성별, 학년,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가설에 제시되지 않은 가외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4)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들 간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도출된 최종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차이검증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진로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성별(강희순, 2010; 이기학, 2003)과 학년(강희순, 2010;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에 따라 연구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변수에 따라 t-test와 ANOVA를 실시하여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 차이검증

	남성(N=190) M(SD)	여성(N=193) M(SD)	t
호기심	3.88(.58)	3.70(.60)	3.11**
유연성	3.81(.58)	3.69(.61)	2.03*
인내심	3.77(.65)	3.62(.68)	2.06*
낙관성	3.97(.61)	3.79(.64)	2.80**
위험감수	3.91(.55)	3.78(.59)	2.27*
진로정체감	3.22(.40)	3.20(.32)	.51
진로결정자율성	7.34(7.53)	8.52(8.68)	-1.42
진로스트레스	2.76(.90)	2.87(.87)	-1.22

* $p < .05$, ** $p < .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호기심($t=3.11$, $p < .01$), 유연성($t=2.03$, $p < .05$), 인내심($t=2.06$, $p < .05$), 낙관성($t=2.80$, $p < .01$), 위험감수($t=2.27$, $p < .05$)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하위요인 모두에서 남성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으며 호기심과 낙관성의 성향이 남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우연한 사건을 진로에 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술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높은 호기심과 낙관성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탐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과제접근기술에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여 차별적인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학년에 따른 측정변인 차이검증

종속 변인	1학년 (n=85) M(SD)	2학년 (n=98) M(SD)	3학년 (n=98) M(SD)	4학년 (n=94) M(SD)	기타 (n=8) M(SD)	F (4,378)
호기심	3.76 (.56)	3.80 (.64)	3.79 (.58)	3.83 (.59)	3.83 (.66)	.159
유연성	3.73 (.58)	3.81 (.60)	3.76 (.55)	3.68 (.63)	3.78 (.90)	.553
인내심	3.76 (.63)	3.74 (.71)	3.63 (.62)	3.64 (.68)	3.83 (.97)	.697
낙관성	3.82 (.64)	3.93 (.64)	3.84 (.65)	3.91 (.59)	3.95 (.71)	.435
위험감수	3.85 (.56)	3.88 (.60)	3.82 (.60)	3.80 (.53)	4.03 (.69)	.380
진로정체감	3.18 (.35)	3.24 (.34)	3.21 (.39)	3.19 (.38)	3.27 (.24)	.561
진로결정 자율성	8.73 (9.36)	7.94 (7.58)	6.92 (8.47)	8.44 (7.24)	6.13 (7.14)	.719
진로스트레스	3.03 (.78)	2.74 (.93)	2.82 (.94)	2.69 (.81)	2.90 (1.24)	1.910

* $p < .05$, ** $p < .01$

한편, 학년에 따른 주요변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학년별로 과제접근기술이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 수준에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2.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수집된 38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주요 측정변인인 과제접근기술의 5가지 하위요인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주요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N=383)

	1	2	3	4	5	6	7	8
1. 호기심	-							
2. 유연성	.72**	-						
3. 인내심	.66**	.69**	-					
4. 낙관성	.66**	.62**	.76**	-				
5. 위험감수	.66**	.73**	.68**	.75**	-			
6. 진로정체감	.10	.14**	.08	.12*	.20**	-		
7. 진로결정자율성	.02	-.02	.14**	.17**	.05	-.15**	-	
8. 진로스트레스	-.33**	-.34**	-.46**	-.45**	-.30**	.28**	-.22**	-
<i>M</i>	3.79	3.75	3.69	3.88	3.84	3.21	7.94	2.82
<i>SD</i>	.59	.60	.67	.63	.57	.36	8.14	.88

* $p < .05$, ** $p < .01$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특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로정체감은 과제접근기술 가운데 위험감수($r=.20$, $p < .01$), 유연성($r=.14$, $p < .01$), 낙관성($r=.12$, $p < .05$)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위험감수, 유연성, 낙관성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진로결정자율성은 낙관성($r=.17$, $p < .01$), 인내심($r=.14$, $p < .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이는 낙관성, 인내심이 높으면 진로결정자율성의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스트레스는 과제접근기술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상관의 크기에 따라, 인내심($r=-.46, p<.01$), 낙관성($r=-.45, p<.01$), 유연성($r=-.34, p<.01$), 호기심($r=-.33, p<.01$), 위험감수($r=-.30, p<.01$)의 순으로 부적인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들간의 관계를 종합해 보았을 때,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 중 위험감수, 유연성, 낙관성이 높으면 진로정체감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며, 낙관성과 인내심이 높은 것은 진로결정자율성 수준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또한 과제접근기술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높은 점수는 낮은 진로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낮은 인내심과 낮은 낙관성이 높은 수준의 진로스트레스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3.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유형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에 따라 동질적인 성향을 가진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Wards의 방법으로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군집화 일정표

단계	군집화 계수	계수 차이
.	.	.
.	.	.
376	193.833	13.655
377	207.488	16.361
378	223.849	19.649
379	243.498	29.310
380	272.808	152.723
381	425.531	293.866
382	719.397	

1단계 분석결과, 4-5개의 군집이 제안되었고, 3-6개의 예비군집을 설정하여 최종군집 개수를 확정하기 위해 2단계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평균 분석을 사용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 군집별 중심점을 기준으로 각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며 각 군집에 배정된 수가 비교적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군집을 6개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군집을 살펴보면 군집 5의 경우 군집크기가 7로 매우 적은 사례가 배정되었다.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일로 연구의 목적에 따라 크기가 작은 군집을 배제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다(조은성, 황인석, 2008; Romesburg, 2004). 군집 5는 전체적인 과제접근기술이 특징적으로 낮은 유형으로 진로상담에서의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군집 5를 포함하여 총 6개의 군집으로 분석하였다.

<표 7> 최종 군집별 중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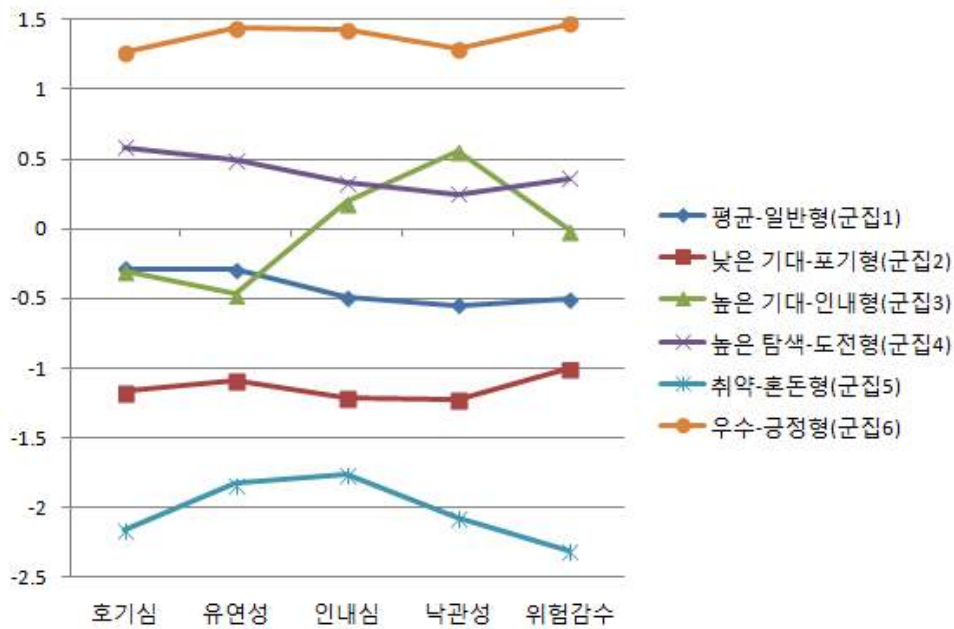
	군집1 평균- 일반형	군집2 낮은기대- 포기형	군집3 높은기대- 인내형	군집4 높은탐색- 도전형	군집5 취약- 혼돈형	군집6 우수- 긍정형
호기심	-.29	-1.17	-.30	.58	-2.16	1.26
유연성	-.29	-1.08	-.47	.49	-1.83	1.44
인내심	-.49	-1.21	.19	.33	-1.76	1.42
낙관성	-.55	-1.23	.55	.25	-2.07	1.30
위험감수	-.51	-1.00	-.01	.36	-2.31	1.47
군집크기	104	62	56	87	7	67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 $M=0$, $SD=1$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표 7>에 각 군집별로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고, 유형별 특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특징을 살펴보면, 군집 1은 평균수준의 과제접근기술을 보이는 집단으로 전반적으로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와 관련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많은 사례가

배정된 집단으로, 이들은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과제접근기술에 대해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진로와 관련한 갈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평균-일반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전체적으로 평균이하의 과제 접근기술을 가지면서도 특히 낮은 인내심과 낮은 낙관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이다. 이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결과에 대한 기대가 낮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하면 노력을 중단하고 또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심리적인 고통을 크게 경험하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노력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어 ‘낮은 기대-포기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높은 낙관성과 인내심이 특징적인 집단이다. 이들은 원하는 결과에 대해 가능성이 있으며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며, 따라서 직업선택 과정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노력을 지속한다.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목표를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높은 기대-인내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전체적으로 평균이상의 과제접근기술을 가지면서도 특히, 높은 호기심과 유연성을 보이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탐색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일이나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성향을 가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며 도전하는 특성을 반영해 ‘높은 탐색-도전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5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과제접근기술을 가지는 집단으로, 가장 적은 수의 사례가 배정된 집단이다. 이들은 정해진 패턴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며, 실패에 대한 내성이 적어 심리적인 고통을 크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변화나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며 확실한 결과와 기대가 예상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낮은 위험감수 수준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약-혼돈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6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과제접근기술을 보이는 집단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일에 적극적이며 우연치 않게 다가온 변화나 도전들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며 실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진로와 관련해 적응수준이 높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진로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수-긍정형’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른 대학생 군집유형

4. 군집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진로특성

1)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군집 1은 104명(전체의 27.2%, 남 56명, 여 48명), 군집 2는 62명(16.2%, 남 20명, 여 42명), 군집 3은 56명(14.6%, 남 29명, 여 27명), 군집 4는 87명(22.7%, 남 47명, 여 40명), 군집 5는 7명(1.8%,

남 1, 여 6명), 군집 6은 67명(17.5%, 남 37명, 여 30명)이 배정되었다.

각 군집이 성별, 전공계열,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X^2(df=5, N=383)= 13.337, p<.05$], 대학만족도 [$X^2(df=15, N=383)= 32.718, p<.01$] 를 제외한 전공계열, 전공만족도와 군집 유형간 유의한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공계열: $X^2(df=45, N=383)= 59.732, p=.070$, 전공만족도: $X^2(df=15, N=383)= 19.971, p=.173$].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은 과제접근기술의 평균 점수가 낮은 군집 2(낮은기대-포기형), 군집 5(취약-혼돈형)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군집 2(낮은기대-포기형)의 경우, 여학생이 2배 더 많았으며 군집 5(취약-혼돈형)에서는 6배 정도 많았다. 그러나 군집 5(취약-혼돈형)의 크기가 작은 점을 고려했을 때, 후속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진로특성 차이를 확인해 봄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만족도는 평균 이하의 과제 접근기술을 가지는 군집 2(낮은기대-포기형)와 군집 5(취약-혼돈형)에서 불만족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평균수준 이상의 과제접근기술을 가지는 군집 4(높은탐색-도전형)와 군집 6(우수-긍정형)에서는 불만족의 비율이 낮고 만족의 비율이 높았다. 즉, 전반적인 과제접근기술이 높아질수록 대학만족도 또한 긍정적인 비율이 높았다.

<표 8> 군집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6	$X^2(df)$
성별	남	56 (53.8%)	20 (32.3%)	29 (51.8%)	47 (54.0%)	1 (14.3%)	37 (55.2%)	13.337* (5)
	여	48 (46.2%)	42 (67.7%)	27 (48.2%)	40 (46.0%)	6 (85.7%)	30 (44.8%)	
전공 계열	인문과학	37 (35.6%)	21 (33.9%)	14 (25.0%)	19 (21.8%)	1 (14.3%)	8 (11.9%)	59.732 (45)
	사회과학	14 (13.5%)	20 (32.3%)	12 (21.4%)	12 (13.8%)	3 (42.9%)	18 (26.9%)	
	자연과학	1 (1.0%)	2 (3.2%)	3 (5.4%)	4 (4.6%)	-	6 (9.0%)	
	공학	18 (17.3%)	6 (9.7%)	9 (16.1%)	19 (21.8%)	-	9 (13.4%)	
	생활과학	-	-	1	1	-	1	

			(1.8%)	(1.1%)		(1.5%)		
의학간호	2	1	1	4	-	5		
	(1.9%)	(1.6%)	(1.8%)	(4.6%)		(7.5%)		
상경	5	1	1	3	1	3		
	(4.8%)	(1.6%)	(1.8%)	(3.4%)	(14.3%)	(4.5%)		
사범	9	1	3	12	1	9		
	(8.7%)	(1.6%)	(5.4%)	(13.8%)	(14.3%)	(13.4%)		
예체능	17	9	12	13	1	7		
	(16.3%)	(14.5%)	(21.4%)	(14.9%)	(14.3%)	(10.4%)		
기타	1	1	-	-	-	1		
	(1.0%)	(1.6%)				(1.5%)		
<hr/>								
대학 만족	매우 불만족	2	3	-	5	-	1	
		(1.9%)	(4.8%)		(5.7%)		(1.5%)	
	불만족	31	23	10	17	2	7	32.718**
		(29.8%)	(37.1%)	(17.9%)	(19.5%)	(28.6%)	(10.4%)	(15)
만족	62	30	33	55	4	42		
	(59.6%)	(48.4%)	(58.9%)	(63.2%)	(57.1%)	(62.7%)		
매우 만족	9	6	13	10	1	17		
	(8.7%)	(9.7%)	(23.2%)	(11.5%)	(14.3%)	(25.4%)		
<hr/>								
전공 만족	매우 불만족	1	2	1	2	-	1	
		(1.0%)	(3.2%)	(1.8%)	(2.3%)		(1.5%)	
	불만족	15	13	4	16	2	4	19.971
		(14.4%)	(21.0%)	(7.1%)	(18.4%)	(28.6%)	(6.0%)	(15)
만족	64	33	32	53	4	36		
	(61.5%)	(53.2%)	(57.1%)	(60.9%)	(57.1%)	(53.7%)		
매우 만족	24	14	19	16	1	26		
	(23.1%)	(22.6%)	(33.9%)	(18.4%)	(14.3%)	(38.8%)		

* $p < .05$, ** $p < .01$, *** $p < .001$

참조 군집 1=평균-일반형, 군집 2=낮은기대-포기형, 군집 3=높은기대-도전형, 군집 4=높은
탐색-도전형, 군집 5=취약-혼돈형, 군집 6=우수-긍정형

2)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라 구성된 하위 집단들이 진로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6개의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군집간에 진로결정자율성 [$F(5,377)=3.789$, $p < .01$], 진로스트레스 [$F(5,377)=22.673$,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2와 가설3-3이 지지되었다. 군집별 진로정체감, 진로 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후검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군집유형별 진로특성의 차이검증

종속 변인	군집1 (n=104) M(SD)	군집2 (n=62) M(SD)	군집3 (n=56) M(SD)	군집4 (n=87) M(SD)	군집5 (n=7) M(SD)	군집6 (n=67) M(SD)	F	사후검증 (Dunnett T3)
진로정체감	3.21 (.28)	3.17 (.28)	3.16 (.25)	3.23 (.44)	3.05 (.29)	3.27 (.49)	1.109	-
진로결정 자율성	8.14 (6.12)	5.48 (6.53)	11.38 (8.72)	7.08 (8.22)	4.50 (13.03)	8.49 (10.03)	3.629**	3>2
진로스트레스	3.09 (.67)	3.40 (.66)	2.48 (.75)	2.77 (.80)	3.34 (.72)	2.13 (1.00)	20.092***	1>3,4,6 2>3,4,6 5>6 4>6

* $p<.05$, ** $p<.01$, *** $p<.001$.

참조 군집 1=평균-일반형, 군집 2=낮은기대-포기형, 군집 3=높은기대-도전형, 군집 4=높은 탐색-도전형, 군집 5=취약-혼돈형, 군집 6=우수-긍정형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진로결정자율성의 경우, 군집별 평균 점수는 군집 3(높은기대-인내형), 군집 6(우수-긍정형), 군집 1(평균-일반형), 군집 4(높은 탐색-도전형), 군집 2(낮은기대-포기형), 군집 5(취약-혼돈형) 순으로 높았으며, 사후검증 결과, 유의도 .01 수준에서 군집 3(높은기대-인내형)과 군집 2(낮은기대-포기형)간에 진로결정자율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군집 2(낮은기대-포기형)는 진로결정자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내심, 낙관성이 낮은 집단으로 진로결정자율성 수준도 두 번째로 낮은 평균점수 ($M=5.48$, $SD=6.53$)가 확인되었다. 군집 3(높은기대-인내형)은 특징적으로 인내심과 낙관성이 높은 집단으로 가장 높은 진로결정자율성 평균점수 ($M=11.38$, $SD=8.72$)를 보였다. 즉,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노력을 지속하는 특성이 높은 집단이 진로를 결정 할 때 보다 주도적으로 자기 내적 동기에 의해 결정하는 등 진로 결정에 있어 자율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의 군집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군집 2(낮은기대-포기형)에서 가장 높았고($M=3.40$, $SD=.66$), 순서대로 군집 5(취약-혼돈형), 군집 1(평균-일반형), 군집 4(높은탐색-도전형), 군집 3(높은기대-인내형), 군집 6(우수-긍정형) 순으로 높았다. 진로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의 과제접근기술과 관련되며 모든 하위요인에서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특히, 가장 관련성이 큰 인내심과 낙관성 수준이 낮은 특징을 보이는 군집 2(낮은기대-포기형)에서 진로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과제접근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군집 5(취약-혼돈형)보다 군집 2(낮은기대-포기형)의 진로스트레스가 더 높은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V. 논 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유형을 확인하고, 도출된 군집유형별로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진로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과 진로특성의 관계

과제접근기술은 성별에 따라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남성의 과제접근기술 평균점수가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된 임금희(2016), 유순화(201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남성의 높은 과제접근기술이 긍정적인 진로특성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라 성차가 발견되는 것은 일관되지만 연구 대상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임금희, 2016; 유순화, 2016; 조은혜, 2012), 과제접근기술에서 나타난 유의한 성별 차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수용하고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며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으로 옮길수록 높은

진로정체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높은 위험감수 성향, 높은 유연성, 높은 낙관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패가 예상될 때 에라도 직접 경험해보고 자기 영역을 확립해가는 것이 진로에 대한 높은 자기정체성을 갖추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진로정체감을 동반한 진로설계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Diemer, 2007; Patton, Bartum, & Creed, 2004), 진로정체감이 낙관성, 유연성 등과 같은 내적 차원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Fouad & Kantamneni, 2008). 또한 진로결정자율성은 높은 인내심, 높은 낙관성, 낮은 위험감수와 관련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것과 내적인 동기를 갖는 것이 관련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동기화될수록 목표에 대한 적극성이 높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진로탐색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윤정, 2013). 마지막으로, 과제접근기술이 낮을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낮은 인내심과 관련되며 낙관성, 유연성, 호기심, 위험감수의 순으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탐색과 결정과정은 미래지향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안정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한다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설승원, 2008),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김경미, 배영광, 2014),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없어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의 성향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으로 진로정체감과 정적 관련이 있었고, 인내심, 낙관성의 성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진로결정자율성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하위요인과 관련하여, 높은 과제

접근기술을 가지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인 진로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기술이 높은 것으로 낮은 진로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었다.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 등 진로발달 및 진로의사결정의 성숙도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은 낙관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낙관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관성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에서 낙관성은 진로장벽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이상희, 서유란, 2012), 진로성숙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며(이동혁 외, 2012), 진로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권혜경, 이희경, 2003; 이상희, 2006;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최옥현, 김봉환, 2006). 또한 낙관성은 후천적인 훈련으로 학습할 수 있고 숙달되면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권석만, 2008; 장옥란, 2006) 대학생의 진로상담과 관련하여 과제접근기술로서의 낙관성이 가지는 함의가 크다.

2)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 유형별 특징 및 진로특성

과제접근의 5가지 하위요인을 통해 구분된 군집은 6개로, ‘평균-일반형’, ‘낮은기대-포기형’, ‘높은기대-인내형’, ‘높은탐색-도전형’, ‘취약-혼돈형’, ‘우수-긍정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유형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인 ‘평균-일반형’은 전체의 27.2%(남 14.6%, 여 12.6%)가 해당된 집단으로, 전반적으로 평균수준의 과제접근기술을 가지는 유형이다. 이들은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과제접근기술에 대해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무관심의 결과이거나 혹은 진로와 관련한 별다른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사례가 배정된 집단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형태로 생각된다. 진로특성에 대한 군집별 차이검증 결과에서도, 평균적인 수준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를 보였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한 대학생들에게는 예방적 접근의 관점에서 진로정보를 제공하거나 진로계획과 관련한 워크샵, 지원활동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진로관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인 ‘낮은기대-포기형’은 16.2%(남 5.2%, 여 11.0%)로 여학생의 비율이 2배 더 많으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비율이 높은 집단이다. 이 유형은 전체적으로 평균이하의 과제접근기술을 가지면서도 특히 결과에 대한 기대가 낮고 실패를 경험하면 좌절하고 크게 낙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진로특성과 관련하여 이 유형은 진로결정자율성의 평균 점수가 두 번째로 낮아 결정에 있어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필요와 압력에 의해 동기화되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스트레스는 가장 높게 나타나 어떤 유형보다도 진로와 관련한 고통감이 큰데, 전체적인 과제접근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취약-혼돈형’보다도 더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진로스트레스는 과제접근의 모든 하위요인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가장 관련성이 큰 요인은 인내심과 낙관성 수준이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진로선택을 모호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높고(오영아, 정남운, 2011; Buhr & Dugas, 2002) 추가적인 정보를 얻음으로써 모호함에서 오는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한다(Greco & Roger, 2001; Laugusen, Dugan, & Bukowski, 2003). 따라서 낮은 인내심과 낮은 낙관성을 보이는 ‘낮은기대-포기형’에서는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고, 결정을 회피하고 미루려 하기 때문에 진로미결정 수준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진로스트레스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유형은 ‘취약-혼돈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감수 성향을 갖는 것이 구별되는 점으로, ‘낮은기대-포기형’은 외적인 동기에 의

해 불확실한 결과를 무릅쓰고 진로를 바꾸거나 행동을 취했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더 큰 폭으로 낙담하고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스트레스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 유의하게 여성이 많았는데, 선행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로적응에 취약함(손은령, 손진희, 2005; 김민선, 서영석, 2009; Cardoso & Marques, 2008)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정화 등(2012)은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집단에 여학생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진로상담에서는 진로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높은 불안과 스트레스에 성별이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는 힘에 대해 논의하고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점을 강화하는 것, 이제까지 성취한 긍정적 경험에 대한 지지적인 태도로 상담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접근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김지영, 2011; Seligman, 2002) 대학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조연교, 2014; 이지원, 이기학, 2017)을 미치기 때문에 ‘낮은기대-포기형’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대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취하게 되는 비관적인 태도,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 현실적으로 점검해보는 인지적인 접근을 통해 내적통제감을 향상(이준기, 이용용, 2005)시키고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고향자, 김영아, 2003)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인 ‘높은기대-인내형’은 14.6%(남 7.6%, 여 7.0%)의 응답자가 해당된 유형으로, 이들은 목표에 대해 가능성이 있으며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직업선택 과정이나 진로발달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며 자신의 정서를 적응적으로 통제하는 낙관적인 특성들의 결과로 보여진다(Vaughan, 2000). 따라서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목표를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로계획의 수립 등 성공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이동혁 외, 2012; Diemer, 2007; Patton et

al., 2004). 진로특성과 관련한 군집 별 차이검증의 결과, 진로결정자율성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아 내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는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낮은 진로스트레스 수준을 보여 진로와 관련한 심리적인 적응성을 보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 동기로 인해 진로의사 결정과정에서 어려움보다는 즐거움과 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Ryan & Deci, 2008). 김기숙(2010)의 연구에서는 인내심이 높은 것이 진로정체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했지만, 이 유형에서는 진로정체감이 특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높은기대-인내형’은 자기확신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로상담 개입 시에는, 수립한 진로계획에 대한 점검 및 결정요인의 탐색 등을 통해 성급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선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우연요인이 ‘특정 활동을 통한 적성 발견’임을 고려해(이상희, 신상수, 2012) 우연하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시도해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권장하는 등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하여 과제접근기술 중에서도 유연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인 ‘높은탐색-도전형’은 22.7%(남 12.3%, 여 10.4%)의 응답자가 해당된 유형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이상의 과제접근기술을 가지면서도 특히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탐색하기를 좋아하는 호기심과 자신의 일이나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성향인 유연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불만족하기보다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평균-일반형’과 구별되는 점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과제접근기술을 가지며 특히 경험에 대한 추구에 있어 특징적이다. 이들은 변화에 대해서도 수용도가 높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탐색하며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등 새로운 자극에 대한 추구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동기를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으나 임은미(2011)에 따르면 진로미결정의 경우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분

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초점 없는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로상담시에 진로에 대한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흥미 위주의 경험에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의 경험과 도전들을 평가해보고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인 ‘취약-혼돈형’은 1.8%(남 0.2%, 여 1.6%)의 응답자가 해당된 유형으로, 절대적인 비율은 남녀 모두에게서 적었으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6배 더 많았으며, 대학만족도에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주로 저학년에 해당했다. 실패에 대한 내성이 적어 실패했을 때 좌절할 수 있으며, 변화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패턴과 경직된 진로방향성에서 오는 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장 낮은 위험감수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변화나 도전에 따르는 불확실한 결과를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 이들은 과제접근기술에 대해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연한 사건을 통해 진로의 기회로 삼는 기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약-혼돈형’에 속한 경우에는, ‘우수-긍정형’과는 반대로 진로에 대한 관여도가 낮으며 진로미결정의 상태 혹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은 진로결정자율성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아 진로와 관련해 외적인 압력이나 필요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높은 진로스트레스를 보였다. 따라서 진로상담시 진로 결정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불안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스트레스원을 파악하고 적응력 향상을 도와야 한다(유나현, 이기학, 2016). 대학 진학의 과정과 학습장면의 실패 경험, 전공과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있는지와 함께 가족, 대학생활, 건강 등 다방면을 점검하여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원인이 환경에 있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탐색해 전과나 편입 등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 내적인 원인이라면 정서적인 문제의 해결과 스트레스 완화 등 개인상담을 통한 개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

서는 부족한 내적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가치를 탐색하고 자신의 강점을 진로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통해 조력할 수 있으며, 외적 동기에 따라 진로를 결정한 경우 점차 전공 관련 다양한 활동들과 정보탐색, 성공 경험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내적인 동기 수준이 높아져 진로에 적응할 수 있다(공윤정, 이은주, 2014). 진로발달과 관련한 가장 취약한 유형이며, 진로상담에 대한 필요가 가장 큰 유형이지만 집단의 사례수가 작은 점을 고려해 추후 과제접근기술이 낮은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여섯 번째 유형인 ‘우수-긍정형’은 17.5%(남 9.7%, 여 7.8%)의 응답자가 해당된 집단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과제접근기술을 보이는 유형이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일에 적극적이며 우연치 않게 다가온 변화나 도전들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며 실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진로와 관련해 적응수준이 높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진로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만족도, 전공만족도 등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높은 수준의 과제접근기술을 가진다는 말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적인 사건에 대해 의미 있는 학습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연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진로와 관련시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탐색이 촉진되고 진로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유형은 진로특성에 대한 군집 간 차이검증 결과 진로결정자율성의 평균 점수가 두 번째로 높았고, 가장 낮은 진로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진로정체감 수준을 살펴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진로정체감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게는 별도의 진로상담이 필수적일 필요는 없어 보이나,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진로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크게 지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학년의 시기에는 방향성을 가

지고 진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직업현장 탐방이나 멘토와의 만남 등 직업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조언이나 정보제공 등이 효과적일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에 따라 군집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진로상담시 개인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진단과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성숙한 진로발달을 위한 예측요인으로 제안된 과제접근기술의 영향에 대해 재확인하고, 이를 하위요인별로 세분화하여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성향에 따라 유의하게 진로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인들의 결합에 따라 평균적으로 높은 과제접근기술을 가진 ‘우수-긍정형’에서는 내적인 동기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보다 성숙한 진로발달을 보였고, 낮은 과제접근기술을 가진 ‘취약-혼돈형’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숙한 진로발달 및 진로적응을 위해서는 진로상담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제접근기술을 확인하고 이를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약한 기술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진로관련 어려움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상담전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과제접근기술에 대해 세분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과제접근기술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했다. 진로발달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유연을 기회로 전환하는 역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 중 낙관성이 가장 높고 인내심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으며, 낙관성과 인내심 수준이 특징적인 ‘낮은기대-포기형’과 ‘높은기대-인내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특성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때, 성숙한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결

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낙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시사된다. 따라서 진로상담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진로상담 및 진로지도에 미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과제접근기술이 우수한 ‘높은탐색-도전형’과 ‘우수-긍정형’은 진로에 대한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실제적인 조언이나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직업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평균적인 수준인 ‘평균-일반형’과 ‘높은기대-인내형’은 진로상담과 관련한 요구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로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이들에게는 진로와 관련한 결정요인의 탐색,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워크샵 등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진로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약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취약-혼돈형’과 ‘낮은기대-포기형’은 우선적으로 스트레스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이 유의하게 많았기 때문에 성별이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탐색해야 한다. 환경/개인 내적인 원인에 따른 대안 마련을 통해 조력하며, 특히 자신의 강점을 진로와 연결시키는 방법, 강점을 강화하는 지지적인 태도와 비관적인 태도,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한 인지적인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스트레스를 통해 진로발달 및 결정에 대한 성숙-미성숙 수준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이들의 결정/미결정 여부를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군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수-긍정형’, ‘높은기대-인내형’, ‘평균-일반형’은 결정자일 가능성이 높고 ‘낮은기대-포기형’, ‘높은탐색-도전형’, ‘취약-혼돈형’은 미결정 상태일 가능성이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미결정자의 경우에 진로상담에 대한 요구와 기대감이 큰 것

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Fouad et al., 2006) 군집유형별 결정/미결정에 따른 진로상담 서비스의 요구 또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군집에 따라 진로결정/미결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성숙/미성숙과 결정/미결정의 두 가지 차원에서 대학생의 진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정체감과 과제접근기술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 높은 수준의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와 정적 관계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진로특성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군집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진로정체감 척도의 신뢰도가 .65로 다소 낮은 점을 상기했을 때, 보다 신뢰도가 높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군집유형별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과제접근기술의 하위요인 중 낙관성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인내심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특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높은 낙관성-낮은 인내심을 특징적으로 하는 군집을 확인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의 과제접근기술을 갖추고 있는 ‘평균-일반형’의 사례수가 가장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과제접근기술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기심, 유연성, 인내심, 낙관성, 위험감수는 Krumboltz 등(2009) 연구자들이 실제 진로상담을 통해 경험적으로 제안된 요인이기 때문에, 그 외에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특성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신순옥 외, 2015). 따라서, 문화적인 맥락과 우리나라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발달 및 적응에 특징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 제안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과제접근기술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군집측정치로 채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군집을 살펴보면 주로 빈도위주로 나타나 군집요인에 따른 형태적인 특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구체적

으로 ‘높은기대-인내형’과 ‘취약-혼돈형’을 제외한 다른 유형들에서는 과제접근기술의 전체적인 수준 차이(평균 이상/ 평균 수준/ 평균 이하)에 비해 하위요인에 따른 조합이 확연하게 제시되지 않아 군집도출에 미흡함이 제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과제접근기술 특성을 형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군집도출 방법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취약한 유형으로 예상되는 ‘취약-혼돈형’의 경우 절대적인 사례수가 적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취약-혼돈형’의 경우 저학년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임은미(2011)에 따르면 진로결정과정의 첫 단계는 입학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시작되는데 입학을 실패한 사건으로 지각하고,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할수록 진로에 대한 태도 및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취약-혼돈형’의 경우, 이미 높은 진로스트레스와 낮은 자율성 수준을 가진 유형의 사람들이 자신의 과제접근기술에 대해서도 낮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성숙한 미결정자로 예상되는 과제접근기술이 빈약한 유형에 대해 추가적인 양적 연구가 필요하며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사례에 대한 질적인 연구 또한 제안된다.

참 고 문 헌

- 강유리 (2006).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이 (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문제해결중심대처방식간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몰입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희순 (2010). 대학생의 성별, 학년, 진로의식이 진로개발 준비도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9(3), 83-104.
- 고향자, 김영아 (2003). 대학생 진로상담에서 인지적 정보처리 접근의 유용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383-402.
- 고홍월 (2008).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성숙수준에 따른 진로결정 문제 분석. **상담학연구**, 9(3), 1137-1149.
- 고홍월, 김계현 (2008). 한국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성숙수준과 의사결정상태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9(1), 147-164.
- 공윤정, 이은주 (2014).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의 진로적응과정. **상담학연구**, 15(5), 1171-1789.
- 곽다운 (201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기남 (2016). **지각된 진로장벽과 우연대처기술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혜경, 이희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자아강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34-741.

- 김경미, 배영광 (2014). 진로정체감과 Krumboltz의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4(11), 497-508.
- 김경옥 (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정은 (2011). **대학생 진로결정-불편 집단의 하위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현, 고흥월, 김정은 (2013). 대학생 진로의사결정 상태의 하위유형 분석. **상담학연구**, 14(6), 3633-3652.
- 김기숙 (2010). **내외통제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을 매개변인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나래, 이기학 (201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관계: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산업교육연구**, 31(4), 111-134.
- 김민선, 서영석 (2009). 공과대학 학생들이 지각한 맥락적 지지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대처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매개효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22.
- 김민정, 김봉환 (2014). 대학생 진로자기조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5(6), 2311-2325.
- 김병숙 (2007). **직업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보람 (2012). **계획된 진로 우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양나연, 양혁, 양준영, 정성훈, 이상민 (2016). 계획된 우연 이론에 기반한 성격 5요인과 우연 기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91-508.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김성경 (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김신정, 김성희 (2012).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3), 1425-1441.

김완재, 정화영 (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상업성과간 관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3), 33-60.

김은주 (2008).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이지, 정신영, 김지애, 김지윤, 이동귀 (2011).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대처 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71-993.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417-442.

김주희 (1995). **낙관주의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주희 (2013).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학습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근, 이기학 (2011).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진로결정에의 몰입의 모형 검증: 자기성장주도성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81-97.

- 김지영 (2011). **성격강점이 긍정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 황매향 (2004). 실업자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1), 637-646.
- 김지혜, 현명호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및 지각된 통제력이 걱정애 미치는 영향: 인지적 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149-1164.
- 김충기 (1999). 진로발달 접근을 통한 진로계획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0(1), 135-182.
- 김태환 (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미화 (2003).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진로결정 스트레스와의 관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민지, 김계현 (2015).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인에 기초한 군집유형별 진로서비스 요구의 차이. **상담학연구**, 16(4), 193-208.
- 서유진 (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설승원 (200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정서 통제감이 걱정애 영향을 미치는 기제: 문제해결지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7(1), 209-235.
- 손은령 (2009).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 혹은 기회의 역할 고찰. **상담학연구**, 10(1), 385-397.
- 손은령 (2012). 직업 성취과정에 미치는 우연 혹은 기회의 영향: 40대 여성 진로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437-453.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사회인지적 진

- 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병국 (1998). 성인노동자의 직업선택과정에서 우연적 요인이 미친 영향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0(4), 65-88.
- 송병국, 이채식 (1997). 규범적 진로발달 이론에 대한 비판. **한국농촌지도학회지**, 4(1), 329-337.
-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진로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 연구: 전환 국면이 있는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4(1), 1-27.
- 신윤정 (2013). 비관주의와 진로탐색행동의 관계에서 결과기대 및 자율성 동기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11), 151-175.
- 아시아경제 (2016). “입사 1년 안에 4명 중 1명 떠난다. 신입사원 퇴사율 28%” <http://view.asiae.co.kr>
- 안윤정, 오현주 (2012). 직업상담사의 직업선택과정에서 ‘계획된 우연’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25(4), 117-140.
- 오영아, 정남운 (201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걱정의 관계: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71-691.
- 오현주 (2013). **작업자의 계획된 우연과 기회전략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나현, 이기학 (2016).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의 어려움 군집유형에 따른 상담개입목표 차이 연구. **진로교육연구**, 29(2), 237-256.
- 유순화 (2016).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교육혁신연구**, 26(3), 149-168.
- 이기학 (2003). 대학생의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일치여부에 따른

-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53-366.
- 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Krumboltz의 우연학습이론을 배경으로 한 과제접근기술, 진로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상담학 연구**, 13(2), 855-875.
- 이상희 (2006). 대학생의 성향변인, 진로장애,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99-417.
- 이상희, 서유란 (2012). 한국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성차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1), 27-53.
- 이상희, 신상수 (2012). 진로선택에서의 우연요인에 대한 대학생의 개념도 분석. **인간이해**, 33(1), 1-20.
- 이재창, 박미진, 김수리 (2005). 청소년의 낙관성과 우유부단이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33-650.
-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11-127.
- 이정아 (2014).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진로적응성의 차이**.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준기, 최용용 (2005). 인지행동치료 진로집단상담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8(2), 124-139.
- 이지원, 이기학 (2017). 대학생의 강점인식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강점활용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1), 205-228.
-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

- 연구, 21(4), 59-80.(2009).
- 임금희 (2016). **재직자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직업적응과 직업전환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과 개입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2(2), 447-466.
- 장옥란 (2006). **낙관성 증진 집단상담이 중학생의 낙관성,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진이 (2016).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 정서조절 어려움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7(2), 121-138.
- 전경구, 김교헌,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정미영, 조한익 (2009).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매개변인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정은경, 김봄메, 손영우 (2011) 조절초점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209-221.
- 정의석, 노안영(200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 전남대학교카운슬링센터, 33, 85-101.
- 정지후, 이상희 (2014). 진로정체감 6개 단계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 진로신념, 우연기술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7(1), 151-170.
- 조남근, 정미예 (2013). 대학생의 우연 대처기술이 진로정체감, 부정적 취업태도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337-357.

- 조성연, 조한익 (2014).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및 지각된 통제감이 걱정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문제 지향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5(5), 1647-1669.
- 조연교 (2014).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활용이 진로태도성숙도, 진로준비행동,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성, 황인석 (2008).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준: SPSS와 Microsoft Excel을 이용한 적용 사례. **상품학연구**, 26(1), 1-9.
- 조은혜 (2012). **취업준비활동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영은, 김시내 (2015).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불안,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탐색. **학생생활연구: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36(2), 67-85.
- 최보영, 김보람, 김아름,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1). 우연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진로 스트레스,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5), 1873-1891.
- 최옥현, 김봉환 (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상담학연구**, 7(3), 821-833.
- 최윤정, 구분정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 하위요인에 의한 진로결정 수준의 차별적 진단. **상담학연구**, 11(4), 1657-1672.
- 최은영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별 특성과 진로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6). **연도별 진학률**.
- 한주옥 (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2002). **진로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타협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황현덕 (2011) **계획된 우연성이 고등학생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조절효과 검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현덕,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2). 고등학생의 계획된 우연 기술 수준에 따른 진로포부와 직업탐색행동의 관계탐색. **청소년상담연구**, 20(2), 193-210.

Bandura, A. (1982). The psychology of chance encounters and life paths. *American Psychologist*, 37(7), 747-755.

Bloch, D. P. (2005). Complexity, chaos, and nonlinear dynamics: A new perspective on career development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3, 194-207.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60-274.

Bright, J. E. H., Pryor R. G. L., & Harpham, L. (2005). The role of chance event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561-576.

Bubany, S. T., Krieshok, T. S., Black, M. D., & McKay, R. A. (2008). College students' perspectives on their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177-197.

Buhr, K., Dugas, M. J. (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0, 931-945.

Buss, A. H. (1989). Personality as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4, 1378-1388.

- Cacioppo, J. T., Petty, R. E., Feinstein, J. A., & Jarvis, W. B. G. (1996). Dispositional differences in cognitive motivation: The life and times of individuals varying in need for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9*(2), 197-253.
- Callanan, G. A. & Greenhaus, J. H. (1992). The career indecis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s: An examination of multiple sub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12 - 231.
- Caplow, T., & Raymond, J. J. (1954). Factors influencing the sele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Journal of Marketing, 19*(1), 18-23.
- Cardoso, P., & Marques, J. (2008). Perception of career barriers: The importance of gender and ethnic variabl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Vocarional and Guidance, 8*(1), 49-61.
- Clancy & Dollinger, (1993) Clancy, S. M., & Dollinger, S. J. (1993). Identity, self, and personality: I. identity statu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 227-245.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 42-61.
- Deci & Ryan (1985).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iemer, M. A. (2007). Vocational hope and vocational identity: Urb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 98–118.

- Diemer, M. A., & Blustein, D. L. (2007). Vocational hope and vocational identity: urb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98–118.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39–852.
- Fouad, N. A., & Kantamneni, N. (2008). *Contextual factors in vocational psychology: Intersections of individual, group, and societal dimensions*.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4th ed., pp.408–425). New York, NY: Wiley.
- Fouad, N. A., Guillen, A., Harris–Hodge, E., Henry, C., Novakovic, A., Terry, S., & Kantamneni, N. (2006). Need, awareness, and use of career services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4), 407–420.
- Gaffner, D. C., & Hazler, R. J. (2002). Factors related to indecisiveness and career indecision in undecid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3*(2), 317–326.
- Gough, H. G. (1987). *Manual for th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Greco, V., & Roger, D. (2001). Coping with uncertainty: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new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519–534. Hanna, Gerald S.
- Guay, F. (2001).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Manuscript submitter for Publication.

- Guay, F. (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77-97.
- Hair, J. H., Jr.,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Holland, J. L. (1985). *Manual for the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Kelly, K. R., & Lee, W. C. (2002). Mapping the domain of career decision problem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302-326.
- Kelly, K. R., & Shin, Y. (2009). Relation of neuroticism and negative career thoughts and feelings to lack of inform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 201-213.
- Kim, B., Jung, S. H., Jang, S. H., Lee, B., Rhee, E., Cho, S. H., & Lee, S. H. (2014).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 239-253.
- Kim, B., Lee, B. H., Ha, G., Lee, H. K., & Lee, S. M. (2015). Examining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 school-to-work

- transi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2, 511-523.
- Krumboltz, J. D. (1979). A social learning theory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A. M. Mitchell, G. B. Jones, & J. D. Krumboltz (Eds.), *Social Learning and career decision making* (pp.19-49). Cranston, RI: Carroll Press.
- Krumboltz, J. D. (1996). A learning theory of career counseling. In M. L. Savickas & W. B. Walsh (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p. 55-80). Palo Alto, CA: Davies-Black Publishing.
- Krumboltz, J. D., & Levin, A. S. (2004). *Luck is no accident: Making the most of happenstance in your life and career*. Atascadero, CA: Impact.
- Krumboltz, J. D., Foley, P. F., & Cotter, E. W. (2013). Applying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to involuntary career transition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1, 15-26.
-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 Laugusen, N., Dugan, M. J., & Bukowski, W. M. (2003). Understanding adolescent worry: the application of a cognitive mode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 55-64.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Wiley.
- Marsh, H., & Yeung, A. S. (1997). Organization of children's academic self-perceptions: Reanalysis and counter-interpretation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4), 752-759.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7).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 52(5), 509-516.
- Miller, M. J. (1983). The role of happenstance in career choice.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1), 16-20.
- Mitchell, K. E., Levin, A.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7(2), 115-123.
- Mitchell, K. E., & Krumboltz, J. D. (1990). Social learning approach to career decision making: Krumboltz's theory. In D. Brown, L. B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145-196). San Francisco: Jossey-Bass.
- Patton, W., Bartrum, D. A., & Creed, P. A. (2002). Multidimensional properties of the LOT-R: Effects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career and well-being related variables i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 42-61.
- Patton, W., Bartrum, D. A., & Creed, P. A. (2004). Gender differences for optimism, self-esteem, expectations, and goals in predicting career planning explor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4, 193-209.
- Porfeli, E. J., Lee, B., & Vondracek, F. W.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 853 - 8871.
- Romesburg, H. C. (2004). *Cluster analysis for researchers*. Lulu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 M. & Deci, E. L. (2008).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to psychotherapy: the motivational basis for effective change. *Canadian Psychology*, 49(3), 186-193.
- S. C. Vaughan, (2000). *Half empty, half full: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roots of optimism*, New York: Harcourt.
- Sampson, J. P., Jr., Reardon, R. C., Peterson, G. W., & Lenz, J. G. (2004). *Career counseling and services: A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Pacific Grove, CA:Brooks/Cole.
- Scheier, M. F., &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7.
- Seligman, M. E.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 3-12.
- Shaffer, D. R. (2002). *발달심리학{Childhood and Adolescence}*.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역, 2005). 서울: 시그마프레스.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yser.
- T. B. Kashdan, P. Rose, and F. D. Fincham. (2002). *Curiosity and exploration: facilitating positive subjective experiences and*

- personal growth opportunities*, Manuscript submitted for review.
- T. B. Kashdan, and J. E. Roberts. (2002). *Trait and state curiosity in the genesis of intimacy: Differentiation from related constructs*, Manuscript submitted for review.
- Vondracek, F. W., Schulenberg, J., Skorikov, V., Gillespie, L. K., & Wahlheim, C. (1995). The relationship of identity status to career indecis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8*, 17-29.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71-80.
- Whitbourne, S. K. (1986). Openness to experience, identity flexibility, and life change in adults. *Journal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50*, 163-168.
- Williams, E. N., Soeprapto, E., Like, K., Touradji, P., Hess, S., & Hill, C. E. (1998). Perceptions of serendipity: Career paths of prominent academic women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79-389.
-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CA: Pacific Grove, Brooks & Cole.

ABSTRACT

The Career Characteristics on Cluster Types Based on Task-Approach Skills among college students

Lee, Su Ji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cluster types according to the task-approach skills for college students and verifi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uster types on career characteristics. 383 college students were participated and six cluster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ir task-approach skills. Cluster 1 was the 'average-general type' with the average level of task-approach skills, Cluster 2 was the 'low expectation-abandon type' with low persistence and optimism, Cluster 3 was a 'high expectation - patience type' with high persistence and optimism, Cluster 4 was a 'high seeking-challenge type' with high curiosity and flexibility, Cluster 5 was a 'vulnerable-chaotic type' with a low task-approach skills as a whole, and cluster 6 was 'excellent-positive' with the highest task-approach skills. one-way ANOVA revealed that 'high expectation-patience type'

and 'excellent - positive'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utonomy in career decision and the lowest in career stress, whereas 'low expectation - abandon type' and 'vulnerable-chaotic type' were the lowest in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the highest in career stress. This result implies that career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ask-approach skills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Task-Approach Skills,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stress, Cluster analysis

부 록

부록 1. 과제접근기술 척도

부록 2. 진로정체감 척도

부록 3. 진로결정자율성 척도

부록 4. 진로스트레스 척도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안녕하세요? 설문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접근기술에 따른 진로관련특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행되며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에 서명하시면 연구참여에 동의하시게 됩니다.

귀하의 참여를 통해 대학생들을 세부적인 유형으로 나누어 진로상담에서 보다 깊이 있는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귀하는 과제접근기술과 진로관련 내용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보시게 될 것이며 이는 **약 10분에서 15분정도** 소요됩니다. 응답해주시는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서명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동의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셨더라도 원하면 언제든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연구 참여시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드리며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담당 연구원에게 문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지도교수 이 정 윤
연구원 이 수 진
(연구문의: e02.esjin@gmail.com)

위 내용을 숙지하였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명)

1. 다음은 진로와 관련된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주변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호기심을 갖는다.	1	2	3	4	5
2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뜻밖의 기회가 생기는 것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1	2	3	4	5
3	나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따라 진로의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2	3	4	5
4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	1	2	3	4	5
5	나는 미래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1	2	3	4	5
6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진로를 추구하겠다.	1	2	3	4	5
7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편이다.	1	2	3	4	5
8	내 진로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하나의 진로만 추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유연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10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나는 참을성을 가지고 노력한다.	1	2	3	4	5
11	나의 행동의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해볼 것이다.	1	2	3	4	5
12	나는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다.	1	2	3	4	5
13	나의 미래의 진로는 밝다.	1	2	3	4	5
14	진로탐색에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나는 꾸준히 내가 하는 일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지닌 편이다.	1	2	3	4	5
16	진로탐색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을성 있게 나의 길을 가겠다.	1	2	3	4	5
17	나의 앞날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내 진로에 있어 앞으로 많은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다.	1	2	3	4	5
19	나는 보다 만족스러운 진로선택을 위해 잘 모르는 것에 도전하는 위험도 무릅쓸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나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활동들에 관심이 많다.	1	2	3	4	5
21	우연히 얻은 직업 정보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1	2	3	4	5
22	나는 뜻밖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세운 진로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1	2	3	4	5
23	내가 처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 진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1	2	3	4	5
24	진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5	그 직업에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한 번 도전해볼 것이다.	1	2	3	4	5

2.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에게 해당하는 것을 솔직하게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로에 대한 나의 능력을 몰라서 걱정스럽다.	1	2	3	4	5
2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어 불안하다.	1	2	3	4	5
3	나는 관심 있는 진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다.	1	2	3	4	5
4	나는 진로에 대한 목표가 없어서 고민스럽다.	1	2	3	4	5
5	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전공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부끄럽다.	1	2	3	4	5
6	나는 어떻게 진로를 찾아야 할지 혼란스럽다.	1	2	3	4	5
7	나의 흥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진로분야가 없어 두렵다.	1	2	3	4	5

8	나는 나의 전공을 살려 취업할 자신이 없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갈 것이다.	1	2	3	4	5
10	내 스스로 나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1	2	3	4	5
11	나는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진로분야가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내가 원치 않는 진로를 부모님이 강요한다면 따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15	나는 앞으로 나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6	나는 아직 시간이 많아 진로나 직업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17	나는 관심 있는 진로분야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18	나는 관심 있는 진로분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책, 교재, 참고서적, 기타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하고 있다.	1	2	3	4	5
19	나는 관심 있는 진로분야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체험하고 있다.	1	2	3	4	5
20	나는 관심 있는 진로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체험하고 있다.	1	2	3	4	5
21	나는 관심 있는 진로분야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1	2	3	4	5
22	나는 관심 있는 진로분야를 찾기 위해 필요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23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분야를 찾기 위해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을 한다.	1	2	3	4	5

3. 다음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1~8)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A, B, C, D, 4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행동목록(1~8)과 그 이유(A, B, C, D)들을 잘 읽고, 귀하가 각각의 이유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정도를 잘 나타내주는 곳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구한다. (예: 전문가와의 상담, 지인들과의 대화, 직업인과의 접촉, 인터넷 검색 등)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1	2	3	4	5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1	2	3	4	5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2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 (예: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1	2	3	4	5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1	2	3	4	5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3	진로관련 프로그램 중에, 또는 나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1	2	3	4	5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	1	2	3	4	5

	기 때문이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4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1	2	3	4	5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1	2	3	4	5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5 진로목표와 관련 있는 직업들을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1	2	3	4	5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1	2	3	4	5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6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따라야할 절차들을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1	2	3	4	5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1	2	3	4	5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7 진로선택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1	2	3	4	5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1	2	3	4	5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8 나의 흥미, 성격과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1	2	3	4	5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1	2	3	4	5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2	3	4	5

4. 아래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칸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과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1	2	3	4	5
2	취직을 해야겠는데 학점이 나빠서 걱정이다.	1	2	3	4	5
3	졸업 후의 확실한 진로를 결정 못해서 고민이다.	1	2	3	4	5
4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몰라서 답답하다.	1	2	3	4	5
5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6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1	2	3	4	5
7	내 전공과 졸업 후 활동하고 싶은 분야가 서로 달라서 고민이	1	2	3	4	5

